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50 <끝>

##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는다

### [원문]

나무대방광불화엄경(南無大方廣佛華嚴經)  
만대륜왕삼계주(萬代輪王三界主)  
쌍림시멸기천후(雙林示滅幾千秋)  
진신사리금유재(眞身舍利今猶在)  
보화군생에불휴(普化群生禮不休)  
나무실상묘법연화경(南無實相妙法蓮華經)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 [번역]

대방광불화엄경에 귀의합니다.  
만대 법륜의 왕이며 삼계의 주인이시며,  
쌍림서 열반하신 후 천후가 흘러갔어도,  
진신 사리는 여기 빛으로 자리하고 있네.  
끝없는 증생교화 예배가 끊임없어라!  
실상묘법연화경에 귀의합니다.

### [선해(禪解)]

요즘, 아이티의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만 해도 한 해에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인 산수 풍광(山水風光)을 지닌 곳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 타고난 사람의 수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도 더할 수 없는 복덕(福德)이다.

생명은 아이티나, 미국,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모두 귀중하다. 구호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한다. 각 집단이 앞장서고 있다니 참으로 좋은 모습이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주련이야기를 연재 한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야말로 금강석화(金剛石化) 같다. 사찰 속의 주련을 읽어 내려가면서 새삼 느끼는 우리 선대(先代)의 조사(祖師)들이 얼마나 뛰어난 법구(法句)들을 남겼는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주련의 내용들은 단순한 불심(佛心)의 시각(視矚)을 뛰어 넘어 선문법어(禪門法語)의 깊은 뜻과 오묘한 진리와 운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때는 감히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듯 한 웅장한 위용을 느끼게 해주는 시구(詩句)도 적지 않았다.

비단 내용뿐만이 아니라 웅이 비상(飛翔)하는 듯한 초서(抄書)와 둥글면서 납작한 예서(隸書)의 휘호(揮毫)들은 당대(當代)의 서예가들도 배워야 할 필체이다. 말하자면, 종횡(縱橫)으로 힘차고 걸림 없이 써 내려간 글귀는 바로 불교문화의 자랑이며 유산으로 선지(宣旨)의 풍성하고 오묘한 운율은 아

직도 컷가에 머무는 것 같다.

산승(山僧)이 1950년대 출가할 때만해도 사찰 주련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때라 불교학문과 서도 같은 예술에 시선을 돌 여지가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찰의 주련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산재했다. 요즘, 절에서는 주련의 글귀를 매우 귀하게 여겨 도색을 하거나 심지어 도금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날 주련은 승가나 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어쩌든 산승이 주련의 재료(材料)를 가지고 꼬박 1년 동안 연재를 한 까닭은 사심(私心)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불자들에게 주련에 담긴 불가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 그 와중에 고마움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

오십 회의 원고들을 모아 보니 상당한 양이 된 것 같다. 마치 한 권의 자료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흐뭇하다. 매주 돌아오는 적지 않은 양의 원고들을 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련의 내용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괜한 사설(私說)과 승가의 이야기 및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피

있는 이 절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귀중한 사서(史書)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교(史庫)가 있었다. 1464년(세조 10)에 말사인 상원사(上院寺)를 중수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듣고자 시주물(施主物)과 함께 보내 온 <오대산상원사증장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勸勸善文)>이 보관되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석가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한 8각 9층 석탑과 상원사 증장권선문이다. 이 밖에 일명 약왕보살상(藥王菩薩像)이라고도 하는 보물 제139호인 석조 보살좌상(菩薩坐像)이 있다. 그래서 인지 주련의 내용도 <화엄경>과 <법화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두 대승경전은 '경 중의 왕(王)'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주련에 담긴 두 경의 가르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만대륜왕삼계주' 앞다시 피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을 뜻한다. 대방광이란 우주 같이 크고 밝고 넓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 어구로서 오득(偶得)한 세계의 광대함을 뜻한다. 화엄이란 불타 정각의 경계로서 아름답고 웅대한 도량에 수많은 꽃들이 존엄하게 장식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인데 경전은 화엄과 묘유의 세계관을 비로자나 법신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삼계의 주인이시

며 위대한 법륜을 굴리시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쌍림시멸기천후 진신사리금유재' 부처님은 쌍림서 열반 하신 지 250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월정사에서 진신사리로 빛나고 계신다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보화군생에불휴 나무실상묘법연화경' <나무실상묘법연화경>은 흔히 제법(諸法)의 실상을 바로 깨치면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승경전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경전인데 이러한 부처님의 증생교화는 그 끝이 없어 증생들의 예배는 끊임이 없다는 경구(警句)이다.

월정사 적광전의 주련은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귀의(歸依)를 권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실천 화엄·법화사상을 통해 우리는 이 혼탁한 말세에 본래부처로서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는 대승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5

## '육적', 육바라밀로 전환하라

### [원문]

惑亂身心 沈淪生死 輪迴六趣 受諸苦惱 猶如江河 因小泉源 涓流不絕 乃能瀾漫 波濤萬里 若復有人 斷其根源 則衆流皆息 求解脫者 能轉三毒 爲三聚淨戒 能轉六賊 爲六波羅密 自然永離一切諸苦.

일체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 때문에 몸과 마음이 산란하게 흐트러지며 생사에 빠져 들어 육취(육도)를 윤회하며 온갖 고통을 받는데 큰 강이 작은 샘을 근원으로 하여 쉬지 않고 흐르다가 마침내 가득 차면 만리에 파도가 출몰하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사람이 그 근원을 끊게 되면 온갖 흐름이 모두 쉬게 되느니라. 해탈을 구하는 자가 삼독을 돌려 삼취정계로 만들고 육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 [해설]

우리는 본래 부처님입니다. 다만 무지에 의하여 중생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 한 해 한 해 큰 꿈을 꾸고 살지만 역시 중생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체 현상계는 텅 비어 있건만 진실이 아닌 허망한 존재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온갖 악업을 지어 괴로워하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에 무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마음이 경계에 갇달려 탐심, 진심을 일으키면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구를 파헤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를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자연과 인간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이 무너지면 인간도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독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면 끝이 없어요. 부처님이나 달마 스님께서는 삼독을 끊어야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취정계(三聚淨戒, 일체의 악을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실행하며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라는 것은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두고 정진을 통해 악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품이 드러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쓰면 순수한 부처님 마음은 점점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본래 마음 자리에 두고 깨어있어야 되며 하나로 보고 행하는 자비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실상(實相)을 바라보면 부처 아닌 게 없으니가 모든 대상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는 아상(我相)이 있게 되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하심(下心)해야 한다는 말을 철저히 낮춰야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차원에서 일체 현상계를 부처님으로 알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선행입니다. 불자들이 좋은 일 한다고 봉사하는 것도 상(相)을 가지고 행한다면 순수한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행위를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할 때 바라밀행으로 이어

져 깨달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안이비시신의를 육근 또는 육장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기관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갇달려 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적을 돌려 수행덕목인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히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보시바라밀에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선행 하는 것은 인과에 걸립니다. 내가 행한 것은 반드시 상대에게 되받아야 하니 그 행위는 바라밀이 아닙니다. 베풀 때는 대상이 없어야 해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파도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그림자외도 같은 겁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인데,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실, 그것도 모양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행한다면 우주를 상대로 하는 행위가 때문에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끝이 없는 우주를 상대로 행하니 자연히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이 됩니다. 성현들은 그런 바라밀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조선 후기 도화서(圖書署) 화원이었던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의 달마도

## 붓다 입멸 2500년 지났지만 진신사리로 빛나고 있어

## 화엄경·법화경 통해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임을 강조

력했던 것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이다. 대개 사찰의 주련은 5언이나 7언 절구(絶句)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곳은 특이하게 7언 절구에 맨 처음과 끝이 9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과 끝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간곡한 표현 때문인데 그 내용은 마치 한편의 시처럼 매우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

월정사의 장건 유래가 적혀 있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643년 당(唐)나라에서 돌아온 자장 율사는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절터에 초암(草庵)을 짓고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민지(閔濟)가 쓴 <봉안사리 개건사암 제일조사 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에 인용한 <대산본기(臺山本記)>에는 자장 율사가 초가집을 짓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백산 정암사에서 입적하였다. 이때 자장 율사가 머물던 곳이 바로 현재의 월정사 터라고 한다. 이를 볼 때 이 절은 643년 자장 율사가 건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신의(信義) 선사가 암자를 건립하여 머물다가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땅으로 신앙되고



## 2010년도 전기(제3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 불교학과 (2월개강)

####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이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과목
교수진	무진장 대중사,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인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모주스님, 박종교수, 정병조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주영철교수, 정영섭스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 ■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60명),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60명), 통산반 (60명)

#### ■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년 1월 현재 접수중
-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 입학금 : 250,000원

#### ■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10년 2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 ■ 본회사무처 TEL : (02) 732-1206 FAX : (02)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 www.dongsanbud.net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불교관련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30명)	중국고전(노자, 초발심자경론, 현문해석 금강경(1),(2) 등	임채우교수	3월 4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일본차문화사(한국, 중국, 유럽) 제다학(1), 한국의 현대차	박정열·이춘식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물,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1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2시

###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육적 30승 (2)	모주스님	3월 8일(매주-월) 오후7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산 각 30명)	아함의 교리와 사상	김형준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의 수증론(1)	최봉수교수	3월 11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산전	김진숙·해경스님	3월 16일(화) 오후4시30분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중순법사	3월 6일(매주-토) 오후2시
법례의식반 (2년과정 20명)	법례 실기	인각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3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